



농림부

고병원성 AI 발생 방역조치 해제

농림부는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3월초까지 발생한 총 7건의 AI와 관련, 마지막 발생지인 천안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5월 2일 해제됨에 따라 모든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AI는 전북 익산(2006. 11. 22/27) · 김제(12. 10), 충남 아산(12. 11) · 천안(2007. 1. 19/3. 6), 경기 안성(2. 9)에서 총 7건이 발생, 각 발생지별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 가금류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총 460농가 2백8만수)을 통해 확산을 차단했다.

농림부는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2006년 AI의 국내유입 경로가 2003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울철 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에는 2003년도에 비해 세계적 AI 발생이나 철새의 감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국제수역 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천안)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3. 17)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6. 17)에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임을 선언을 할 예정이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축산물 자조금 수납기관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가 현행 100분의 3 이내에서 100분의 5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지난 4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육우는 80명으로 신설하고, 젖소는 150명에서 130명, 돼지는 200명에서 150명, 육계 · 산란계는 150명에서 각각 8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의무를 폐지하고, 보고사항에서 사육기간을 제외했다.

그리고 수납기관(도축장 등)의 거출금 징수 수수료를 현행 100분의 3 이내에서 100분의 5 이내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한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을 현행 매달 10일 까지를 매달 20일까지로 연장했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86P 참조).

■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자금 3,270억원 지원

농림부는 환율하락, 고유가 등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4월부터 3,270억원의 수출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수출업체의 원료농산물 구매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되며,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연중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일반업체가 연 4.0%, 농업인단체는 연 3.0%로 매년 말 수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0.5~1.0%p의 인하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최근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시 부과되는 수출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사업의무 미달에 따른 위약금리도 인하하는 등 자금수요업체 입장에서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2개 업체가 동 자금을 지원받아 604백만불의 수출실적과 1,638억원의 원료농산물을 구매해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농축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

법안 심사소위, 5년간 면세혜택 유지키로

도축세 폐지와 면세유류 영구세화를 위한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농축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 4월 20일 홍문표 의원 주최로 열린 '농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농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면세유류 영구세화가 한나라당 당론임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신중식 의원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한·미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농축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돼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홍문표 의원은 "국내 농축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한·미 FTA 타결로 농축산업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농축산인들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 24일 회의를 열어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연 2조원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면세유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12년까지 5년동안 면세혜택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상주근무제 시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산물 위생관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상주근무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명)은 지난 4월 6일부터 주 3일간(4주간) 검역원에 상주 근무하면서 축산물영업소 위생점검 등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이번 명예감시원 상주근무는 검역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투명한 위생감시를 구현하고, 명예감시원에게 축산물의 생산과정 및 위생관리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상주근무 명예감시원은 실무 교육, 위생점검 기회 확대 및 생산업체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검역원에 요구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2007년 하반기에도 상주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생관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류질병과 연구팀, 3회 연속 학술발표 우수상 수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연구팀은 지난 4월



20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2007년도 대한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3회 연속 수상한 것.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조류질병과 김민철 박사는 지난해 12월 국내사육 메추리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 발표함으로써 학회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조류질병과 연구팀은 지난해에도 동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오리간염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결과(김민철 박사)와, 추계학술대회에서 H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철새 감염사례를 분자역학적으로 규명(정옥미 연구사), 최근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뉴캐슬병 백신의 닭에서의 방어효능을 분석평가(전우진 연구사)한 연구결과로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준현 조류질병과장은 “국내 수의학계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한수의학회에서 3회 연속 학술발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사로,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발생 등 국가재난에 속하는 큰 방역현안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룬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그 값어치가 크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연구팀은 지난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에 조류인플루엔자 분자역학적 분석연구 등 총 8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있어, 조류질병 연구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 제1기 공익수의사 임관식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도에 선발된 공익수의사 124명에 대한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모두 마치고 5월 1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임관식을 갖고 첫 업무에 돌입했다.

공익수의사제도는 현행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제도로 수의사가 지자체 등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공익수의사 배치는 시군구, 시도, 검역원 순으로 하며, 기관별 배치인원은 가축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 농림부 장관이 결정한다. 배치기준은 본인의 희망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경험이 있을 때에는 군사교육성과 직무교육성적을 고려해 배치하게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동·축산물 교역 증가로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 가능성 증가,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으로 인한 가축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을 일선방역현장에 배치해 인력부족 현상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30일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수입축산물의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을 위해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2006년 9월 25일 국립수위과학검역원으로 이관했다(2,400개업소).

관련 업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축산물의 위해요소 발생시 자발적 회수방법, 영업신고(폐업, 휴업 등) 절차 등 축산물수입 판매업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축산물수입신고 및 검사요령, 축산물 표시기준을 설명해 축산물의 수입절차에 대한 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수위과학검역원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인터넷상으로 영업신고 등 민원서류가 신청·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원별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발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지난 4월 25일 '2006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송아지(번식우)와 계란(산란계)을 제외한 육계·비육우·우유·비육돈 생산비

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된 추세를 나타냈다.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2005년 1,440원에서 2006년 1,195원으로 1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면 비육우·젖소·비육돈은 판매체중 및 판매금액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반면, 번식우·산란계·육계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2006년도 농가 산지 판매가격은 2005년과 비교하면 대부분 축종에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DDA·FTA 등으로 축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인들의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농림부는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통계' 81P 참조).

축산연구소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고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에서는 축산연구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전문가를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코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다 음 -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가. 채용직급 : 일반계약직공무원 7호(7급 상당)
 - 나. 채용인원 : 홍보전문가 1명
 - 다. 근무예정기관 : 축산연구소(경기도 수원시 소재)
- 채용(계약)기간 : 3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주요 담당업무
 - 가. 축산연구사업에 관한 홍보기획 및 전략 수립
 - 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활용
 - 다.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의 기획·편집

라. 언론·방송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등

■ 채용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2007. 5. 7(월)~5. 11(금)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5. 18(금)

다. 면접시험 : 2007. 5. 25(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5. 28(월)

■ 홈페이지 : www.nlri.go.kr

축산물등급판정소

창립 18주년 기념 및 고객가치경영 선포식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4월 17일 3층 대강당에서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객가치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농림부 관계관 등 초청인사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이후 그간의 고객만족경영 활동 보고와 함께 '고객가치경영 선포'를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동안 3F운동(공정한 판정, 신속·정확한 정보, 친절한 서비스)을 바탕으로 고객을 초청한 등급판정과정 설명, 화상정보서비스, 핸드폰을 이용한 등급판정결과 문자서비스, 사무실 환경개선 등의 고객만족 활동을 수행해 왔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번에 발표한 '고객서비스 헌장'을 통해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지표를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전문기관을 목표로 수준 높은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고객가치경영'을 통해 신속·정확한 판정, 고객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여 명실공히 고객가치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창립 18주년을 맞아 당면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1일자로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지정고시 됐다(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02개 기관으로 이중 공기업 24개 기관(시장형 6, 준시장형 18), 준정부기관 78개 기관(위탁집행형 65, 기금관리형 13)으로 분류·지정됐으며, 농림부소관 기관으로는 한국마사회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경영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율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양계협회

전국 닭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오는 5월 8일(안양), 10일(대전), 15일(경주) 3일간에 걸쳐 '전국 닭질병방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양계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질병근절

에 대해 5가지 세분화된 주제로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대책'(농림부 가축방역 장기윤 서기관), 'HPAI 감염 경로와 농가 방역대책'(이상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ND 채혈활동 및 가축방역의 중요성'(노천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 'LPAI 백신접종 및 근절방안'(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원장), '농장에서서의 마이코플라스마 예방'(반 덴 보쉬 인터베트 수의사) 순으로 진행된다.

■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 현판식 개최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센터(공동위원장 이연종·김근호)'가 지난 4월 11일 축산회관 5층 대한양계협회 사무실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서성배 한국계육협회장, 김연수 한국토종닭협회장, 이연종 분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 무등록종계장척결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미 지난 1월 10일과 3월 14일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종)에서는 종계부화업계의 발전전력을 강구키로 하고 우선 미검정 종계에 대한 단호한 대처방안 마련과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신고) 센터를 설치,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협조체제를 구축, 공동 운영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계·부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갈수록 그 위험수위가 높아져가는 무등록 종계·부화장을 계도 또는 고발조치하여 조기에 색출·척결하고, 최근 S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토종닭·백세미의 생산을 막아 소비자에게 우리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국내 양계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 센터를 출범시키게 됐다.

이를 위해 본 센터의 위원장으로 이연종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과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 무등록종계장척결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됐고, 대한양계협회 사무실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한국토종닭협회와 공동 운영키로 했다.

본 센터는 금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백세미의 종계에 준하는 관리방침 마련과 기존 부화장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 등을 통해 종계·부화산업의 안정화와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에 김동수 박사 취임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4월 27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통해 원장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김동수 박사를 제9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경남 창원 출생으로 한양대에서 이학박사를 취득, 일본 동경수산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한 신임 김 원장은 식품발효공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이자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2007 안전 축산물 전시회’ 개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에서는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과 더불어 도시 소비자들에게 좀더 가깝게 접근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코엑스 대서양홀 5관에서 ‘자연에 믿음을 더한 우리고기, 맛있게 먹자’ 라는 주제로 ‘2007 안전 축산물 信 전시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 2007. 6. 22(금)~6. 24(일) 10:00~17:00
- 장소 :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대서양홀 5관
- 전시품목 : 소 · 돼지 · 닭 · 오리 · 사슴고기 및 그 외 가공업체, 계란, 우유 등 제품소개 및 축산물 관련 정보 전시
- 문의 : (02)325-3300

한국가금학회

2007 춘계 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는 오는 5월 17일 농협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가금산업의 현안과 생산성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2007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다 음 -

- 일시 : 2007. 5. 17(목) 10:30~16:00
- 장소 :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당
- 주제 : 가금산업의 현안과 생산성 향상방안(가금질병과 위생관리)
- 발표내용
 - 국내발생 조류인플루엔자(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윤정 박사)
 - 닭 전염성기관지염 한국 유행주의 분자생물학적 특성과 한국 분리주 이용 신장형 생독백신의 효능연구(건국대학교 송창선 교수)
 - 한국의 뉴캐슬 질병 현황(강원대학교 성환우 교수)
 - 도계육 품질저하에 의한 육계산업의 영향((주)올품 신계돈 부장)
- 등록비 : 10,000원
- 문의 : (041)580-6728 

인사소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4월 1일자)

〈승진〉

- | | |
|----------|-----|
| • 선임연구위원 | 어명근 |
| • 연구위원 | 박문호 |
| • 부연구위원 | 신용광 |

- | | |
|------------|-----|
| • 부연구위원 | 장승동 |
| • 전문연구위원 | 서형석 |
| • 초청전문연구위원 | 김태영 |
| • 초청전문연구위원 | 송성환 |
| • 초청전문연구위원 | 이형우 |
| • 책임기능원 | 정예환 |
| • 책임기능원 | 윤여흥 |